

어보이드 노트 및 텐션 노트를 이용한 편곡에 관한 연구

조범진*,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n Arrangement through Avoid Note and Tension Note

Beom-Jin Jo *, Tae-Seon Cho **
Chungwoon graduate school *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아티스트에게 음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대형기획사는 치밀한 기획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음악적 정체성이 없는 아이돌이라는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상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던 아티스트 프린스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편곡자로의 프린스는 텐션 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어보이드 노트마저도 음악적인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대중에게도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음악에는 정답이 없고, 그 본질에는 예술이라는 근본이 있어야 한다.

주제어 : 텐션 노트, 어보이드 노트, 모달 인터체인지, 프린스, 블루스, 소울, 편곡

Abstract It is crucial to a musical artist whether or not they have a musical identity. Major entertainment companies of Korea are strongly promoting a cultural product called ‘Idol’, where musical identity and musicianship are not important, with careful production and capital.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of Prince, who remains to show clearly his philosophy and identity, in the state where lack of musical identity is being promoted. Many studies done on his musical brilliance and uniqueness can be a great incentive to rethink on the nature of music. As an arranger, Prince used tension notes effectively and even showed that avoid notes can be used to express a musical color. Studies on his musical brilliance and uniqueness must continue to be done and become an incentive to not just people who study music but for everyone to rethink the nature of music. There is no correct answer to music, but art has to be the essence of its nature.

Key words : Tension note, Avoid note, Modal Interchange, Prince ,Blues, Soul , Arrangement

* A summary of this paper is organized in 2015 Ch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Received 23 September 2015, Revised 24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통해 '유효수요의 부족'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 말은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방면으로 많이 인용되어왔는데 지금의 한국 대중음악계의 현실에 적용해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최근의 음악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진보했으나 음악의 본질인 '감정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퇴보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1953년 휴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며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초과학, 예술, 인문학은 점점 사양길에 들어섰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학에서 마저도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분야만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라 우리의 삶에서 여유와 낭만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정신은 황폐화되었다. 음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음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중음악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결과 감성을 표현한 '작품'은 점점 사라지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작된 '상품'들이 주류가 되었다[1].

음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에 부합하는 뮤지션으로 프린스(prince)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만들었던 음악의 분석을 통해 음악이 가져야 할 가치를 되짚어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음악인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2].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프린스의 정규앨범 중 실험적이고 편곡의 색채가 독특하게 나타나있는 <Around the World in a Day>, <Dig U better dead> <Chaos and Disorder> <The Same December> <I like Funky Music><What Do U Want Me 2 Do?> 다섯 곡을 선택하여 리듬, 멜로디, 화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2.1 Around the World in a Day

1985년에 발매된 일곱 번째 앨범 <Around the World in a Day>의 동명 타이틀 곡이다. 이 곡의 특징은 저음을 담당하는 bass가 악기편성에서 빠져있다는 것,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악기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bass는 근음을 담당하며 화성의 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강박의 악센트를 다루며 리듬을 이끌어준다. 그러나 이 곡에서는 bass가 빠져있는데다가 다른 악기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에서는 화성의 진행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멜로디를 비롯하여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 각각의 선율이 합쳐지면서 화성을 만들기 때문이다[3].

[Fig. 1] verse 1 1~4 bar

[Fig. 1]은 verse 1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벨은 각 코드의 루트, 5th, 9th를 아르페지오로, 기타는 루트와 9th를 잇박에 연주하고 있다. 노래 멜로디는 3rd, 4th(11th), 5th, b7th로 이루어져 다소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Fig. 1]에 나타난 세 파트의 구성음을 합하면 조화로운 화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chorus 5~8 bar

[Fig. 2]는 chorus의 5~8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에 비해 더욱 단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verse부분과 마찬가지로 각 파트의 악기들은 단선율로만 연주되고 있다. 마디의 synth는 구성음만 볼 때 Gm의 느낌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작은 볼륨으로 믹스되어 첫 음인 Bb만 어렴풋이 들리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 부분의 노래는 메인 보컬과 코러스가 첫 박을 비운 채 유니즌으로 D와 F를 강조하기 때문에 synth와 어우러져 Bb 코드의 느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디는 bell이 3rd, 4th(11th), 5th, b7th를 나타내고 guitar가 제 2박에 루트를 단 한 번 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F 코드의 느낌이 나온다[4].

[Fig. 3] intro four bar

2.2 <Dig U better dead>

[Fig. 3]은 intro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드럼과 기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네 마디를 루프를 반복한다. 기타는 두 번째 마디에서 제 3박의 업비트에 A#음을 사용했다. 이 곡은 F#m key이며 intro와 verse는 계속해서 F#m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타에서 나오는 A#은 어보이드 노트가 된다. 프린스는 이 A#을 제 4박을 반 박자 당긴 싱크로페이션으로 사용하여 어보이드 노트임을 더욱 강조하였다[5].

[Fig. 4] verse 1 melody pattern

[Fig. 4]는 verse 1의 멜로디 패턴이다. 두 개의 성부로 나오는데 각각 F#m의 5도와 b7도에 해당하는 C#, E로 되어있다. 그러나 마지막을 반음씩 내려줌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어보이드 노트를 만들어 독특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

[Fig. 5] verse 2 four bar

[Fig. 5]는 verse 2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 1에서 계속 나왔던 F#m은 verse 2로 들어오면서 4도도 약하여 Bm로 바뀌면서 안정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다시 F#m로 떨어지고 베이스가 A음을 연주하면서 1전위 화음의 성격으로 바뀌어 다시 불안한 느낌이 되었는데 제 3박의 업비트에 나오는 기타의 A#은 불안감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6].

2.3 <Chaos and Disorder>

[Fig. 6] intro four bar

[Fig. 6] 은 intro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은 Cm key로 intro가 네 마디 밖에 안되지만 3rd를 배제하여 메이저와 마이너를 확실하게 구분짓기 어렵게 했다. verse1에 들어와서 비로소 b3rd로 시작되는 멜로디는 이 곡의 조성이 마이너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록앤롤의 경우에도 기타의 루트와 5th를 함께 연주하는 주법으로 그 키가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Fig. 7] verse 2 four bar

[Fig. 7]은 verse 2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3rd를 배제했던 앞부분과는 달리 verse 2의 제 5마디부터는 오르간이 간간히 내추럴 3rd를 연주하여 완벽한 C 메이저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르간이 E음을 연주하는 7~8마디 동안에는 보컬을 포함한 그 어느 파트에서도 b3rd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루트와 5th만의 연주 안에서 b3rd가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의 조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ig. 8] verse 2 9~12 bar

[Fig. 8]은 verse 2의 제 9~12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verse 2의 9마디 부터는 오르간의 연주에 의해 Cm - C - Cm - C 로 각각 한 마디 마다 마이너와 메이저의 느낌을 내고 있다[7].

[Fig. 9] outro 5~8 bar

[Fig. 9]은 outro의 제 5~8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제 5마디부터는 기타와 코러스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데 코러스는 두 개의 성부로 나누어져 각각 G, Eb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고 있다. 여기서 윗 성부는 G-F-E, 아랫 성부는 Eb-D-C로 이루어져 마이너와 메이저를 특정 짓지 않은 채 그 사이를 마음껏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4 <The Same December>

[Fig. 10] verse from chorus melody

[Fig. 11] bridge 4/4 beat

[Fig. 10]은 verse부터 chorus까지의 멜로디를 나타낸 것이다. 4/4박자의 곡이지만 리듬 패턴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것이 주목할 만하다.

[Fig. 11]은 bridge부분을 4/4박자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이 곡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bridge부분은 12/8박자의 리듬으로 되어있다. 2절의 chorus가 끝나고 interlude의 리프를 진행하다가 폴리 리듬을 사용하여 12/8박자로 매끄럽게 전환되었다. 4/4박자의 악보로 생각을 하면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기타리프가 시작되는 부분을 6/8박자로 본다면 [Fig. 12]와 같이 변박을 통해 분위기가 전환되는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8].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guitar and bass. The top part is in 4/4 time, with the guitar playing a complex, rhythmic pattern. The bass line is simpler, following the guitar's rhythm. The bottom part is in 6/8 time, with the guitar playing a similar pattern. The bass line is also in 6/8 time, with a more melodic feel.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each with a measure number (6, 10, 14) at the beginning.

[Fig. 12] bridge 6/8 beat

[Fig. 12]는 bridge부분을 6/8박자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outro부분은 다시 4/4박자로 돌아와서 마무리되는데, 마치 트릭을 사용한 것처럼 변박을 통해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센스가 매우 놀랍다. 퓨전재즈에서는 이런 식의 편곡이 종종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난해함 때문에 대중음악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9].

2.5 <I like Funky Music>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ocal, guitar, and drum. The vocal part is in 4/4 time, with the lyrics "E-very bo-dy get on the floor We got the groove you feel in your soul". The guitar part is in 4/4 time, with a complex, rhythmic pattern. The drum part is in 4/4 time, with a simple, steady rhythm.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each with a measure number (1, 2, 3) at the beginning.

[Fig. 13] verse four bar

[Fig. 13]은 vers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곡에 나오는 기타와 코러스는 자연스럽게 잘 안다. 자세히 들어 보면 원래 템포의 절반의 빠르기로 늦춰서 녹음을 한 뒤에 재생 속도를 두 배로 하여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만든 것이다. 4 beat로 간단하게 나오는 드럼은 메탈의 강력한 사운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지만 주변에서 받쳐주는 기타, 브라스, 신스베이스의 그루브가 16 beat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10].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brass, synth, and drum. The brass part is in 4/4 time, with a complex, rhythmic pattern. The synth part is in 4/4 time, with a simple, steady rhythm. The drum part is in 4/4 time, with a simple, steady rhythm. The score is divided into three systems, each with a measure number (1, 2, 3) at the beginning.

[Fig. 14] interlude four bar

[Fig. 14]는 interlud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브라스는 9th와 11th가 번갈아 나오는 라인을 연주하고 있다. 텐션에 해당하는 음을 컴핑이 아닌 리프로 연주하여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다이아토닉에서 벗어나 독특한 느낌을 연출했다. 제 3마디의 3, 4박을 채우는 오르간 리프는 두 개의 성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 성부는 b3rd(Gb), 9th(F), b6th(B)이고 아래 성부는 7th(D), 6th(C), 9th(F)로 코드를 구성하는 음 이외의 음을 보면 Ebm7에서 볼 때, 두 음의 음정이 장 3도로 시작하여 완전 4도를 거쳐 다시 증 4도로 즉, 장 3도로 시작한 음정이 반음씩 두 단계를 거치며 증가하며 증 4도로 마무리되므로 불안감을 극대화 시켰다[11].

2.6 <What Do U Want Me 2 Do?>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four-bar verse. It consists of four staves: Vocal, EP (Electric Piano), Bass, and Drum. The vocal line has lyrics: "One day, maybe I will be a star I see U picked me out like U want something". Above the vocal staff, the chords Cmaj7 and Fmaj7 are indicated. The drum part features a consistent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Fig. 15] verse four bar

이 곡은 2004년에 발표한 프린스의 재기작 [Musicology]에 수록되었다. 이 음반은 대중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프린스의 전작들 만큼의 강한 개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비교적 무난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인 부분을 가볍게 다룬 것은 아니다. 음반의 곳곳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곡에서는 모달 인터체인지 기법을 활용했다. [Fig. 15]는 verse의 네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1도-4도 진행이지만 프린스는 4도의 자리인 FM7에서 1도의 리디안 모드인 C 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여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했다[12,13].

3. 결론

아티스트에게 음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의 아이들은 한류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대한 세계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예술의 형태로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과 한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보다 음악이 일회성 소비재로 전락하고, 음악가가 연예인이 되어 활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술성과 상업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음악인을 비롯하여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이다[14,15].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리듬, 멜로디, 화성, 녹음기법

등 음악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프린스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음악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시간을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아갔다. 독특한 사운드와 리듬을 가지고 기존의 음악체계에서 금기시 했던 화성을 과감하게 사용하며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천재성과 독특함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대중에게도 음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음악에는 정답이 없고, 그 본질에는 예술이라는 근본이 있어야 한다. 거대한 변화를 피하기에는 미약한 힘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더 발전 하는데 이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CKNOWLEDGMENTS

A summary of this paper is organized in 2015 Ch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REFERENCES

- [1] Han-Seung Oh The Study on the Trend of Pop-Music Consumers'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100-4104, 2014
- [2] Seung-Hyun Cho Long term solution for K-POP globalization -Concentrating to the change in edu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18-4423, 2015.
- [3] Jae-Young Jin Tae-Seon Cho Comparative Analysis on Lee Ritenour and Larry Calt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635-2604 2014.
- [4] Tae-Seon Cho Research on Vocalization for Korean pop Song: Case from the Yong phil Cho's "A Lady out of Window" Journal of The Korea

-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0 No.10 2009.
- [5] Hyeong-Chun Kim Tae-Seon Cho A Study on the Similarity between Bix Beiderbecke and early 20th English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8 2012.
- [6] Yong-Sun Choi The study on interdisciplinary Project Class For Contents Production in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4, 1603-1608, 2011.
- [7] Do-Toung Yoon Tae-Seon Cho Analysis Of the Bass Performance Of Jimmy Blant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 pp56-61 2015.
- [8] Hee-Chul Choi Tae-Seon Cho A Anatical Study of Rutger Gunnarsson's Bass Performance Charateristics in ABB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7 pp4105-4110 2014.
- [9] Kim-Joong Hoy An Analysis of Music by Guitarist Jim Hall :Based on 'Careful' and 'Waltz N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204-4211, 2013
- [10] Sung Soo Kim Alternative Music - Ambiguity of Genre & Beat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212-4217, 2013
- [11] Hye-Seung Shin The Study of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Program for Applied Music-Major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10 pp. 3673-3679, 2010
- [12] Kil Jung Study on Orchestration in John Williams's Film Score "Star Wars-Main Tit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477-5485, 2011
- [13] Tae-Seon Cho The Study of Vocalization for Korea Pop Music So-Mo-Ri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6 pp2491-2496 2012.
- [14] Seong-Woong Bae1, Jeong-Bae Park A study on

- How Korean Wave's characteristic effect on sponso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70-77, 2015
- [15] Jae-Yung Cho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24-4431, 2015

조 범 진(Jo, Beom Jin)



- 2013년 2월 : 디지털서울문화 예술 대학교(학사)
- 2010년 5월 : 밴드 사랑과평화 , 청운대학교 대학원
- 2012년 2월 ~ 현재 : 한양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출강
- 관심분야 : 실용음악, 기타, 보컬
- E-Mail : bjgroove@naver.com

조 태 선(Cho, Tae Seon)



- 1983년 10월 : 대학가요제금상
- 2002년 3월 : TJB MC
- 2012년 2월 ~ 현재 : 실용음악 학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 관심분야 : 실용음악, 보컬
- E-Mail : entheos@chungwoon.ac.kr